



### 초등학교에서 한자 공부를 하게 하자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겨울 방학 중인 1-2월에는 각급 학교에서 2023학년도 학교 교육계획을 세운다. 교육계획에 학생들이 경험해야 할 교육과정 편성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따라 학교와 학생들 변화의 차가 생기게 된다. 학교 교육 계획은 국민교육을 위해 교육부에서 지시한 상위 목표인 기초(基調) 자료와 학생의 실태조사 학부모의 의견 조사인 기저(基底)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학교장 책임 하에 교사가 작성한다. 교육은 가정과 학교에서 하며 부모나 교사의 경험을 자녀와 학생이 재구성하는 것이 교육이고 학습이며 경험 재구성을 돕는 것이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다.

어떤 경험을 언제 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교육학자 하비가스트(Havighurst, R.)는 일생을 6가지 시기로 나누어 각각의 시기에 고유의 발달 문제를 제시하고 달성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명백히 밝혔다. 어느 시점의 나이에서 경험해야 할 경험을 하지 못하면 다음 나이에서 학습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경험을 하지 못하고 중학교 과정으로 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教育課程)(경험의 총체)에서는 지적인 면에서는 문자의 이해와 암기 습득이다. 문자라 하면 숫자도 있고 한글 한자 영문자도 있다.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턴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말과 문자의 근원이 되는 한자는 한글전용이라는 고집에 뒷전으로 밀려 법적으로 2009년부터 초등학교에서 교장 재량으로 한자 교육을 하게 되어 있으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한자 교육이 빠져 있다. 자기의 이름을 한자로 지었는데 자기 이름을 읽지 못하는 한자 문맹은 누구를 탓할 것인가? 조상은 나무의 뿌리와 같으며 조상의 이름이 한자로 기록된 것이 족보인데 족보를 읽지 못하는 후손에게는 조상이 없다. 이래야 하겠는가. 한자 문맹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에서 2018년부터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한자 병기(併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것도 한글 전용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했다.

자녀의 교육은 부모가 가정에서 먼저하고 이어서 교원을 학교에 넘겨 학교 교사가 자녀를 학생으로 교육한다. 이러한 자녀와 학생이 글을 못 읽는

한자 문맹이 된 것에 대해 부모와 학교는 교육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차원에서 새로운 각성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

광주·전남도 교육청에서는 2023학년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창의 체험 학습 과정 편성 지침에 학교장 재량시간에 한자교육을 선택해서 하도록 시달렸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장 재량시간에 한자 교육을 우선해서 선택해 전교생이 한자에 대해 경험하게 해야 한다.

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하려면 국어책을 전교생이 소지하고 있듯이 검인정 한자 교재를 학생들이 지급받아 소지하고 학교에서 안내하고 지도한 방법대로 한자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에서의 한자 교육은 교육감은 교장이 할 것이라 책임 전가하고, 교장은 교사들이 반대한다며, 교사들은 학교 교육은 학교장 책임으로 하므로 교사가 한자 교육하자고 말할 수 없다고, 서로 발뺌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소속한 학생은 한자 교육 없는 학교생활이 되게 한다. 이래야 하는가?

암기력이 가장 좋은 초등학교에서 암기해야 할 필수적인 것을 못 하고 실기한다면 후회만 따를 뿐이다. 광주·전남에는 광주·전남 교직원들이 편집한 검인정 초등학교 한자 교재가 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안순일 교육감 때 한자 읽기 교재를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부하고 한자 교육에 관심을 두었으나 장휘국 교육감 재임 12년간에 한자 교재는 폐품 쓰레기로 사라졌다.

지금 시중 서점에는 한자 공부를 독습으로 할 수 있는 교재들이 선보이고 있다. 한자 교재의 선택은 학교에서 선택사항이나 학생들이 쉽게 한자 공부를 할 수 있게 편집된 교재를 선택해야 한다. 부모와 교사가 한자 문맹의 늪에서 벗어나 초등학교에서 창의적으로 한자 교육을 하게 해야 하며, 무책임한 책임 전가는 있을 수 없다.

발달단계에서 문자인식 도가 가장 빠른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의도적으로 시행하여 한자 문맹을 구제해야 한다. 교육하는 가정과 학교에서는 한자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시기가 초등학교임을 알고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하게 해야 하며, 학부모는 2023학년도 초등학교 교육계획에 전교생이 한자 교육을 하도록 요구하고, 초등학교는 2023학년도 교육과정에 한자 교육을 포함해서 지도하도록 해야 한다

### 트래킹 클리너로 전기화재 예방

김성환 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최근 5년 전남 지역 겨울철 화재는 평균 960건 발생하였으며, '19년 코로나 확산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1일 화재발생 건수는 연평균 7.2건, 겨울은 8.3건으로 겨울에 화재발생 빈도가 높다.

화재 발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부주의가 60.9%, 전기적 원인이 18.3%, 기계적 요인이 8.6% 순으로 부주의의 다음으로 전기에 의한 화재가 자주 발생하며, 특히 겨울철 전기장판·히터,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등 난방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 작년에 비해 겨울철 체감 온도가 급격히 낮아진 요즘, 우리 스스로가 전기화재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화재예방에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무안소방서는 작년부터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특별한 예방대책을 추진 중이다. 노후 주택이나 축사, 공장 등 콘센트 내 먼지·분진으로 인한 전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존 소방장비와 결합한 자체장비를 개발(트래킹 클리너)하였으며, 대상처를 직접 방문하여 트래킹 제거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겨울에는 전남의 모든 소방서가 트래킹 클리너 장비를 준비하여 장비 소개 및 대어는 물론 전기화재 예방교육 등을 실시중이며, 전기 안전관리를 위한



무료 콜센터(450-0861)를 함께 운영 중이다.

또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는 전기시설 안전사용을 위한 트래킹 클리너 활용을 집중 홍보하고 농공단지과 축사, 음식점 등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화재안전조사와 안전 상담 등을 통해 노후된 전기시설에 대한 트래킹 클리너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119생활안전순찰대' 안전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노후된 주택의 전기 안전사용 진단과 전기시설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기는 현대에 이르러 없어서는 안 될 친숙하면서 소중한 자원이며 다가오는 미래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자원이다. 잦은 사용과 무분별한 과용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가 주요 화재 원인의 두 번째 타이틀이라는 오명을 씌운 것은 아닌가 반성해야 한다.

전기는 열을 발생시키고 열은 화재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전기용품은 항상 정식으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되, 마모되거나 훼손되면 즉각 교체하고 먼지가 자주 쌓이는 곳은 자주 청소해 줌으로써 트래킹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전기 안전관리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며 살아야 한다. 멀티콘센트의 플러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처럼 주기적인 관심과 예방습관이 몸에 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겨울을 나길 바란다.

칼럼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기고

### 희망찬 미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안병진 장흥군청 인구청년정책과장



2023년 1월 1일부터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됐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저출산·고령화 등 지역 인구감소로 지방 재정이 어려워지고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지방은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기부금으로 지방재정을확충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물, 지역 상품권, 서비스 상품 등 답례품을 받게 된다.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 해 시행에 얼마의 기부금이 모금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장흥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정성이 우리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만은 분명하다. 홍보와 답례품 관리도 중요하지만 모아진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더 중요하다.

장흥군은 올해 상반기에 고향사랑기부금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내년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기부자들과 함께 지역의 변화해 가는 모습을 지켜 볼 것이다.

시행초기인 만큼 개선해야 할 부분도 보인다. 첫째, 국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야 할 제도 시행 초기에 홍보수단의 과도한 제한으로 지자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기부자들의 기부납부절차 개선이다. 기부방법은 고향사랑e음이라는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과 농협에 가서 대면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으로 기부했던 사람들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다는 반응과 기부를 하려다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농협으로 가서 신청하는 경우도 납부까지는 가능하나, 답례품을 선택시에는 본인이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만 한다.

장흥군은 납부 절차 등 매뉴얼을 사전 제작하여 기부자들의 응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하루빨리 편의를 위해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이제 첫 발걸음을 떼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었지만 장흥군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부를 통해 관계인구 형성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 크게 기대하고 있다. 올해 전면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장흥의 변화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신고	182	▲인광알고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직무대리 서선욱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총호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용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연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만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